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 “내 몸을 만지는 것은 싫어요 !”

(사)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책임연구원 윤 소 영

1.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

우리 나라의 성폭력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검찰에서 매년 발간하는 범죄에 대한 공식 통계(범죄분석)의 시계열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성폭력 범죄는 약 3.5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목할만한 사실은 어린이 성폭력 피해가 더욱 정도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보고에 의하면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성폭력 의뢰 상담 가운데 어린이 성폭력 피해는 매해 전체의 약 30%를 전후해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1999년 3월 현재 보건복지부가 밝힌 1998년 전국 43개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모두 2만 4천 788건이며, 이 가운데 7세 미만의 유아의 성폭력 피해 사례는 4.2%에 달하는 등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전체 성폭력 상담자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그 상대적 폭력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동아일보, 1999.3.5).

어린이 성폭력의 심각성은 발생이 빈번하다는 데도 있지만 그 후유증이 일생동안 다양한 증세로 나타나면서 피해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어린이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을 잘 보여주는 것이 김부남, 김보은, 김진관 사건이다. 이로써 어린이 성폭력 후유증이 얼마나 끈질기고 참혹하게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유린하는가가 드러난다. 어린이 성폭력 후유증은 일생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 성폭력에서 일컬어지는 어린이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경우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중 0세에서 7세까지의 어린이는 유아로, 8세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는 어린이로 보고 있다. 이런 구분은 초등학생이나 아나바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시기의 어린이는 아직 자아개념, 자기 존중감 등이 견고하지 않고 자기 방어능력 또한 없는, 신체적으로나 사회적

으로 취약한 집단이다. 더구나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 미비한 현실 속에서 이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부산성폭력상담소가 1999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의 33%가 성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성교육 만족도도 8.3%에 불과해 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시민의 신문, 1999.1.10).

성폭력이란 용어와 관련해서는 학대, 성폭행, 성폭력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 어린이 성학대가 가장 폭넓은 개념으로 여겨진다. 어린이 성학대의 경우, 예컨대 성기노출, 관음증, 키스, 애무, 구강성교, 질, 항문, 입 등에 성기나 물체를 삽입하는 것, 사진(어린이를 사진찍거나 어린이를 포르노에 노출시키는 것) 등 다양한 구체적 성적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한국성폭력 상담소, 1991).

특히 어린이들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더욱 놀라게 한다. 어린이의 경우 교사, 유치원 원장, 통학버스기사를 비롯해 친부, 의양부, 숙부, 조부, 오빠 등 친족에 의한 피해가 많으며 대부분 위협이나 폭행보다는 애정위장, 금품유인, 속임수 등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또한 지속적인 피해를 가한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권혜진, 1996). 1996년 6월에 알려진 안산 우성유치원 원장의 유치원생 집단 성폭력 사건도 이러한 아동 성폭력 사건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어린이의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광범위한 심리적 문제나 대인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이춘재, 1996). 어린이 피해자들이 단기적으로 나타내는 심리적 후유증은 공포와 불안 강박행동, 분노와 우울, 순결 상실감, 장소와 사람에 대한 회피, 퇴행 등이다. 악몽, 불면증, 야뇨증도 강간과 성추행 피해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최영애, 1996)

아동의 성폭력 경험이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거의 합의된 사실이지만, 성폭력 경험이 피해자에게 반드시 피할 수 없거나 전방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전문적인 개입활동들은 그들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이춘재, 1996). Kendall-Tackett과 그의 동료들(1993)의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 아동의 40%는 성폭력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 다만 성폭력 피해의 결과는 그 정도나 지속시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성기접촉이 적고 한 번 뿐이었고 부모에게 알려

서 부모가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전형적인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반대로 가해자가 가까운 사람이고 성폭력이 장기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더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었다.

다른 사회문제도 다 그러하지만, 특히 어린이 성폭력은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만약 어린이 성폭력이 발생하였다면 부모나 양육자가 조기에 발견하여 그 치료를 도와주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 성폭력 예방의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가르치는 일이다. 이것은 가능한 일찍 시작해야 한다. 2살 정도의 어린아이에게 그의 성기의 명칭을 알도록 가르칠 수 있으며 목욕시간을 통해 자신 말고는 어느 누구도 그의 성기를 만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자신의 가정을 믿도록 허용하며, 그럼으로써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린이 성폭력은 예방차원의 노력과 함께 사후의 적극적인 치료활동도 필요하다. 성폭력으로 피해를 본 아동이 그것에 뒤따르는 심리적 후유증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일에 관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집단상담을 통해서도 치료할 수 있다. 나이 어린 아이들을 위한 집단이 있고, 성폭력 피해 아동의 어머니나 가족집단도 있을 수 있다. 피해아동의 심리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심리치료도 가능하다. 만약에 가해자가 한 가정에 머물러 있다면 아동이 가 있을 수 있는 위탁가정을 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성폭력 특별법이 통과되어 199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199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확대 개정되어 의붓아버지의 성폭행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 형사법상 강간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까지 보고된 바 있다.

아동 성폭력의 피해자의 대다수가 평소에 알고 있는 성인이라는 사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뿐 아니라 이러한 성인들의 성의식을 수정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교육이나 홍보활동은 아직 걸음마 상태에 머물러 있다. 현재 단계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5-6학년 여학생들을 따로 모아놓고 1년에 두차례 정도 슬라이드를 상영하는 것이 고작이다. 물론 제대로 된 교과서도 없다(한겨레신문, 1998. 9. 8).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어느 인터뷰 기사(서울신문, 1998. 4.

28)에서 “얼마전 학교에서 들은 성교육 강의는 너무 시들했다. 영사기를 돌리니 우선 남녀 해부도가 하나씩 나왔다. 그러더니 여성의 난자가 만들어지는 난소, 남자의 정자와 만나는 자궁에 이르기까지 줄곧 해부도만 보여주는 것이었다. 2학년때 월경을 시작한 나는 물론 남자아이들도 모두 유치하다고 키득댔다”는 답변은 아이들의 불만이 어느정도인지 짐작하게 한다.

더욱이 N세대로 지칭되는 오늘날의 아이들에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물학적 지식전달에 치중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때부터 들어온 이야기를 반복하는 수준의 교육은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위한 성교육지침서나 비디오 등 시각자료가 계속 발간되고 있지만, 이미 일부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음란물을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성숙한 586세대인데 학교교육은 286에 머물러 있는 상태”(한겨레신문, 1998. 9. 8.)이다.

어린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길러주고 자신을 중요시하는 습관을 길러주며,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의 심리적인 영향력을 발견하고 피해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치료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어린 아동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대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들이 가장 흥미있어 하고 가장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예를들어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2. 교육교재 개발

과거에 비해 최근 성교육이나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성교육 관련 책자나 성교육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러나 서점가에 있는 아동용 책자는 대부분 아동의 몸이나 출생에 대한 교육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아동에게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교재가 거의 없었다. 아이들은 시각적 효과에 매우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활자만으로 쓰여진 것보다는 시각적인 자료들이 효과적이다. 우리는 교육 초기 단계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의를 끌고 새로운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기로 하였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잠재적인 피해아동에게 효과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고자 한

다.

본 교재의 개발은 가정학 전공 영역의 연구원과 교수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현재 (사)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운소영 박사(이화여대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강사)와 장병옥 박사(숙명여대 가정관리학과 강사)가 글과 구성을 담당하였으며, 임정빈 교수(한양대학교 소비자가족주거학과 교수), 최동숙 교수(강원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최덕경 교수(한경대학교 생활관리학과 교수), 박영애 교수(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박옥임 교수(순천대학교 소비자가족아동학과 교수)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교육교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어떻게 태어났나요
2. 내 몸을 만지는 것은 싫어
 - 1) 성폭력이란 어떤 것인가?
 - 2) 성폭력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나?
 - 3) 성폭력은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나?
 - 4) 성폭력은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나?
 - 5) 어떻게 조심해야 되나?
 - 6) 우리는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가?
3. 나는 이렇게 해요
 - 1) 경계한다
 - 2) 위험한 상황을 피한다
 - 3) '싫다'고 말한다
 - 4) 사람들의 도움을 청한다
4.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있었던 이야기-
5. 부모님도 함께 보세요.
 - 1)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2)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을 알아둡니다
 - 3) 상담 기관의 연락처를 알아둡니다

3. 교육방법과 교육대상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학생들에게 집단교육(학급별)을 통해 실시한다. 교재에서 개발된 삽화나 장면을 교육환경에 따라 OHP, 슬라이드, LCD project 등의 기구를 이용해서 시각적인 자료로 제시하여 교육시킨다. 직접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나 학교에는 개발된 교육자료 책자를 무료 배포한다.

4. 교육 효과

첫째, 유아 및 어린이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새로운 교육교재 개발. 아동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해하기 쉽고 보급하기 용이한 책자(만화나 삽화로 구성)를 통해 아동 피해자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피해아동의 정신적 영향력 최소화.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은 성폭력의 경험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시각 교정. 성폭력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아동 성폭력의 문제도 어른들의 재교육과정을 통해 비뚤어진 성의식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재교육의 교육교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성폭력 방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의 환기.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되고, 일반인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 성폭력 방지 및 올바른 성의식 확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5. 재교육 및 연계 프로그램

아동성폭력 예방 교육은 1999년 가정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건전한 가정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가족원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소외되거나 문제를 겪는 가족원에 대해 가족 공동의 문제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로 계속되는 프로그램이다.

가정에서 부부폭력이나 아동학대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CD 개발 이후에, 아동의 사회적 관계 확대에 의해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성폭력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후에는 장애아동을 위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가정내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교육, 학내 및 직장내 성희롱 방지법 교육, 온라인상의 성폭력 대처방법 교육 등을 연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새롭고 효과적인 교육교재를 개발하는 작업에서 이를 보급하는 단계로 확대될 예정이다.